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전국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789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0월 30일 (음력 9월 20일) 화요일

오늘 나로우주센터서 韓-러 과기장관 우주회담

러 기술이전 속도 붙나

내년말 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 협력 확대 논의

한국과 러시아 우주개발 주무 장관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개발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과학기술부는 러시아 페르미노프 연방우주청 장관이 30일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과 한·러 우주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우주개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페르미노프 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17일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김우식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러시아측의 협력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페르미노프 장관의 방문에 따라 양국간 우주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나로우주센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정부가 내년말 나로우주센터에서 소형위성발사체를 차질 없이 발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2008년을 '한·러 우주의 해'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러시아의 우주기발개술 전수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말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의 발사체로 쏘아올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한·러 공동으로 소형위성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으나 그동안 이 사업이 TSA 발효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페르미노프 장관은 러시아 우주개발센터인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채석한 돌을 가져와 양국 우주분야 협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나로우주센터에 설치하게 된다. 내년 우리나라가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 9번째로 자력 위성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현재 위성발사에 성공한 이른바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돼 있는 나라는 러시아·미국·프랑스·일본·중국·영국·인도·이스라엘 등 8개국이다.

한편 지난 2003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500만㎡에 짓고 있는 나로우주센터는 29일 현재 공정률 99%로 발사통제동과 조립시험동, 추적레이다동 등 기본시설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 시험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러시아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아 짓고 있는 우주센터의 핵심시설인 발사대가 완공되는 내년 6월이면 전체 공정이 마무리돼 국산 과학위성 2호를 직접 발사하게 된다. 오는 2016년까지는 1.5t급 다목적 실용위성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金배추 수확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다. 배추(3포기 기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오른 1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29일 해남군 화원면 들녘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부의 손길이 바쁘다. /해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몸 사리는 金배지들

"피감기관에는 털 끝만치도 부담을 지우지 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일부 의원들의 국감 향응 파문으로 정치권에 회오리가 일자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바짝 몸을 사리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1반은 29일 영암 현대호텔에서의 1박부터 이튿날 전남을 떠날 때까지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키로 했다.

호텔 숙식비는 물론 감사 당일 점심식사도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1인당 1만원짜리 동태찌개를 먹고 비용을 스스로 내기로 했다.

과거 국감에서는 간혹 오찬 중 반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남도 감사반은 도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데다, 최근 향응 파문을 의식해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치경기자 unipark@

광주공항 국제선 일부 이전 움직임

이용섭 건교 "광주시-전남도 합의 존중…내달 1일 입장 정리"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맞물린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 논란과 관련,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다음달 1일 광주를 방문,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광주공항 국제선 일부 노선만 우선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노선은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공 때까지 존치되는 선에서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2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 시기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공을 비롯한 SOC 건설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유연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한 국제공항에 국제선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뒤 "그러나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하고 여객 편의 증진과 서남권 관문 공항 육성을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 건의문을 낸 데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있어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달 1일 광주를 방문,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광주의 갈등을 풀고 무안국제공항의 위상도 세우는 윈윈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공시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일부 노선만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의 이전 논란은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시까지 일부 노선만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전남 동부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전북 지역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SOC 건설 방안 등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박지경 기자 tuim@

지방의 선택! 희망2007
대선 50일 앞으로…전국 민심은 ▶3면

우람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onnam-tsc.kr

대선주자 연속 인터뷰-민주노동당 권 영 길 후보 ▶인터뷰 5면

"재정·인사권 지방에 이양"

"광주에 우리농산물 지원센터 설립"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는 "개발과 독점의 20세기 방식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진 21세기형 문화와 관광지역으로 광주·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28일 전북 김제시 위원회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전남은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등의 산악자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갯벌 등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물론, 광주와 전남간 연계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조속히 확충하도록 하겠다"며 "농도인 전남의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우선 구매, 소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권 후보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과 인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며 "나아가 지역 돈은 지역에서 유통되도록 '지역재투자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진보대 보수', '한미FTA 반대 대 찬성', 비정규직 저지 대 확산' 세력 간의 대결이다"며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 후보 모두 나와 반대에 있으며 결국 이명박 후보와 맞설 사람은 권영길 뿐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